

[소피아] 불가리아 국회, EU SAFE 차관협정 비준...9개 국방 프로젝트 자금조달 근거 확보

'26. 8월. 4일(화)

□ 개요

- '26년 7월 30일, 불가리아 국회는 EU-불가리아 간 SAFE 차관협정 및 유럽 집행위원회와의 운영약정 비준안을 1·2차 심의 동시 통과(찬성 132, 반대 6)
-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32억 6,170만 유로(약 3조 8천억 원) 규모 차관 협정이 이번 비준으로 법적 효력 확보, 불가리아군 발전계획(2032 국방 투자 프로그램)에 포함된 9개 핵심 방위 프로젝트 자금조달 근거 마련

□ 주요 내용

- (차관 조건) 총액 32억 6,170만 유로, 유럽집행위 선지급금(차관 총액의 15%, 약 4억 8,925만 유로) 협정 발효 후 3개월 내 지급
- (상환 조건) 최대 10년 거치기간, 최대 45년 분할상환, 우대금리 적용, SAFE 프로젝트 관련 조달 물자 VAT 면제
- (대상프로젝트) BTA(현지 신문사) 언급

연번	내용
1	3D 레이더
2	지대공·미사일 방어체계
3	155mm 자주포
4	다연장로켓시스템
5	대드론체계 및 전자전장비
6	155mm 탄약
7	RBS 15Mk 대함 미사일
8	VLMICA 함대공미사일
9	불가리아 군 수송지원

- (정치적 쟁점) 야당 Vazrazhdane · GERB는 예산재정위원회 미심의, 금리 비공개, 자체 추진탄약 생산공장 사업의 불확실성 등을 문제 제기
 - 국방장관은 “EU측이 자체 생산공장 건설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조달 방식으로 전환됐다” 해명, 프로젝트 간 예산 재배분은 가능하나 신규 프로젝트 추가는 불가하다고 답변

□ 시사점

- 이번 비준으로 SAFE 차관의 법적 기반이 완성되어, 하반기부터 개별 프로젝트별 실제 발주·계약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
- 9개 프로젝트 중 대드론체계, 전자전 장비, 탄약(생산설비 포함) 분야는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으로 협력 여지 존재
- 다만 SAFE 기금은 EU 역내조달 우선 원칙이 적용되므로, 한국기업의 단독 입찰보다는 현지·EU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, 기술이전, 라이선스 생산 등 우회적 참여 방식 검토가 현실적

□ 정보원 및 일자 (2026.7.30.)

<https://www.bta.bg/en/news/bulgaria/1176914-parliament-ratifies-safe-loan-agreement-operational-arrangements-with-european->